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8
----------	-----

제안연월일 :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 이진환, 조성대, 이정애, 한근수, 이경숙, 박경원,  
김현택,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박은경,  
박윤옥, 김동훈, 정현미, 한송연, 김지훈(민),  
이수련, 김상수, 원주영, 손정자, 전해연

## 1. 주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북부 이전 목적이 지역 간 형평성과 장기적 발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데 있음을 재인식하고, 당초 확정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진 만큼, 남양주시로의 이전 가능성과 적합성을 신중히 재검토해주시기를 건의함.

## 2. 제안이유

-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서울 편입’을 위한 통합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경기도와 엇갈린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구리시의 ‘서울 편입’ 행보는 경기북부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거나 재투자 비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남양주시는 이미 다산 신도시 사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상업·업무지구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시에 증명해온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도시개발 노하우를 결합하여 경기북부 전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 건의안 : 덧붙임

4. 이송처 : 경기도, 경기도 의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

경기북부는 도시·교통·산업·문화·환경 인프라의 확충 여력이 높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북부 이전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 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동북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 년째 경기도와 인사교류마저 중단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 할 경우 행정구역 및 법적 지위 변동의 위험이 커져, 공사의 사업 안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입체복합화 사업과 3기 왕숙 신도시 조성 사업 역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침체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에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도 ‘서울 편입’으로 인해 경기도와 엇갈린 정책 방향을 제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게 요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구리시가 ‘서울 편입’에 실질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재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전향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의 결정을 건의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남양주시와 74만 남양주 시민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이전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